

진정한 경쟁과 협동의 가치를 발휘하려면?

●●● 이솜 우화 - 두 마리의 염소 이야기

안녕하세요? 한농연농업정책연구소 연구팀장 한민수입니다. 누워있던 부지깽이도 일어나서 농사일 도와야 한다던 모내기철 농번기가 지났습니다만, 장마철 게릴라성 호우나 태풍 걱정도 노심초사하실 회원 여러분의 깊은 걱정 근심이 여기 서울에서도 많이 느껴집니다.

이번 7월호 농협개혁 시리즈는 조금 더 쉽게, 가슴에 와 닿는 글로 인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솜 우화에 나오는 두 마리 염소 얘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우리농협소식” 같은 책의 표지에 나온 그림으로 이 우화를 많이 접하셨을 줄로 압니다.

얘기는 간단합니다. 두 마리의 염소가 있는데, 개네들 목에는 서로 떨어져서 다니지 못하도록 노끈이 단단히 감겨 있습니다. 그런데 각 염소의 옆에는 맛있고 싱싱한 풀이 자라나고 있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염소들이 각기 자기 앞의 풀을 먹으려고 서로 꺽꺽대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노끈 길이가 짧으니 자기가 먹으려는 풀 쪽으로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염소들이 줄다리기를 하는 꼴이 됐지 뭐예요?

그렇게 한참을 힘들게 있다가 염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한쪽 풀부터 같이 먹은 다음에 다른 쪽으로 같이 가서 풀을 먹자. 그렇게 하면 별힘 들이지 않고, 서로를 도와가면서 배를 불릴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두 염소는 서로가 협력을 해서 맛있고 신선한 풀을 양껏 배불리 먹고,

행복하게 지냈다는 게 우화의 결론입니다.

아래 그림은 협동조합 운동에 대해서 배우신 회원분들께서 너무나 많이 접하셨던 그림일 겁니다. 간략하게 4개의 그림만 보여드릴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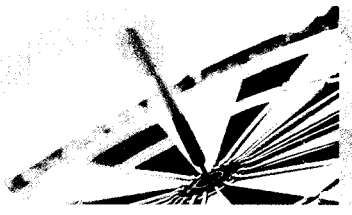
이 우화를 가지고 일일이 복잡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같이 생각해 봐야 할 질문거리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회원 여러분과 함께 여러모로 의논해 봤으면 하

는 바람입니다. 이 우화가 결국 협동조합의 기본 정신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고민해 본 해답은 다음 호를 통해 제시해 드리려 합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아주 재밌는 애깃거리들이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회원 여러분께서 나이 어린 자제분들과 이 얘기를 나눠보신다면, 그것 또한 자녀 교육상 매우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1. 왜 굳이 많은 초식동물 중에서 염소일까요? 힘이 센 코끼리도 황소도 있는데 말이죠?
2. 왜 염소들은 줄에 매여 있을까요? 좀더 자유롭게 줄 없이도 살 수 있을텐데 말이죠?
3. 왜 염소 두 마리는 굳이 용을 쓰고 각자의 앞에 있는 풀로 나아가려 했을까요?
4. 그러다가 두 염소가 머리를 맞댄 이유는 무엇일까요?
5. 염소들은 왜 왼쪽 풀부터 먹었을까요? 그리고 나중에는 왜 오른쪽으로 갔을까요?

● ●
“선착순”과 “PT체조”의 서글픈 추억,
그리고 농민들의 처지



농협개혁시리즈

제가 이번 글의 제목을 “진정한 경쟁과 협동의 가치를 발휘하려면”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과 상관있는 얘기 하나! 한국협동조합연구소의 김기태 소장께서 쓴 글의 일부를 인용하고자 합니다. 한국 남자들, 군대 가서 더럽고 치사한 꼴 많이 당하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선착순(혹은 찍고와)”하고 “PT체조”란 게 있습니다. 김기태 소장은 훈련병 시절의 서글픈 추억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산폭격과 엮드려 뺨쳐, 좌로 굴러, 우로 굴러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하면 된다. 하지만 선착순은 방금까지의 동료들 단 한 순간에 경쟁자로 적으로 만들어 버린다. 교관이 “골대 돌아서 선착순 10명!”이라고 외치는 순간, 훈련병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뛰기 위해 달려간다.

첫 10명이 숨을 헉헉거리며 열외가 되고 나면, 나머지 100여명은 다시 한 바퀴 더 뛰어가고, 그렇게 3~4번 돌고 나면 이미 체념해 버리는 사람, 앞사람의 옷자락을 잡는 반칙을 저지르는 사람, 중간쯤에서 끼어들어 뛰는 사람 등 말 그대로 낙후된 자들의 비루함과 교활함이 거친 숨과 함께 터져 나온다.

PT체조는 반대로 너무나 집단을 강조해

서 교관이 마음대로 정한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을 집단의 적으로 만들어 버린다. “마지막 구호는 없다, PT체조 10회 시작!” 구령과 함께 PT체조를 하다가, 한 명이라도 “열”이라고 외치면, 20회, 30회, 40회로 늘어난다. 훈련병들은 교관이 아니라 실수한 훈련병에게 험상궂은 눈길을 보낸다.

이 두 가지 기함은 한 쪽은 개인간의 경쟁을, 한 쪽은 집단의 통일을 강조하지만, 규칙을 만드는 강자는 열외시켜놓고, 약자들 간의 경쟁과 상호간의 증오만 남긴다. 그런 군대에서도 협동의 훈훈함은 어김없이 있게 마련이다. 천리행군이든 백리행군이든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동료의 총을 들어주고, 군장을 대신 메어 주는 눈물겨운 동료애가 발휘된다.

2년여 동안 사회에서 격리되어 복무해야 하는 군대 안에서만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런 현상은 농업계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갑”과 “을”의 관계가 무섭다고들 하죠? 예를 들어 농민이 “을”이라 한다면, “갑”은 농민들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선 정부나 지자체,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나 일선 조합의 대부계 직원(조합장, 전·상무), 혹은 대형유통업체의 바이어 같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이른바 “갑”의 위치에 있는 그들은, 농민들이 필요한 정책자금이나 상호금융자금 대출, 농가부채 대책, 각종 사업이나 이권, 농축산물의 출하와 제값 받기 등과 관련해서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습니다. 마치 유격훈련 때 무소불위의 권한을 쥐고 훈련병(올빼미)들을 뒤흔드는 교관과 같은 지위를 갖고 있죠. 거기에 농민들은 짓눌려 살아왔습니다. 그네들이 정하는 원칙과 방향대로만 모든 일을 해 오면서, 법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무임승차도 해 보고, 그네들이 떡고물 던지듯이 주는 이권이나 특혜를 덩석 받아 물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농민의, 농민에 의한, 농민을 위한” 진정한 경쟁과 협동의 가치와는 계속 멀어지는 잘못을, 혹시 우리 농민들 스스로가 범해 왔던 건 아닐까 진정으로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민 스스로의 힘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규칙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며, 강자인 “갑”에 농민들의 경제사회적 권익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관철함으로써, 스스로 지역농업의 발전을 책임지는 주체로 우뚝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경쟁과 협동의 원칙이 아닐까요?

● ●
애벌레들을 하나도 죽이지 않는 혁명을 시작해야 합니다!

혹시나 자제분들께서 읽고 있는 책 중에 “꽃들에게 희망을”이란 책이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1972년에 처음 출간돼 전세계적으로 수백만부가 팔리며 아직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입니다.

호랑 애벌레 한 마리가 알에서 깨어 애벌레가 됩니다. 나뭇잎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다가 어느날 문득 “이런 삶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게 분명해!”라 생각하면서 낮선 세상을 다니다가 어느날 거대한 애벌레 기둥을 바라보게 됩니다. 수많은 애벌레들이 저마다 꼭대기를 향해 올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는 그 애벌레 기둥의 이야기라든지,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어 어른 나비로 자라나서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번씩 그 이야기를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높은 구름 저편, 한참 높은 곳에 있던 애벌레 기둥 꼭대기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죽자 살자 애벌레 기둥을 타고 올라가는 것만이, 높은 하늘의 맨 끝에 다다른 의미 있는 삶의 모습일까요?

지역농업네트워크라고, 농업경영 컨설팅을 하는 업체의 10주년 기념식 자료집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민속씨름 선수가 멋지게 상대 선수를 쓰러뜨리는 사진이 하나 있고, 오른쪽에는 자랑스런

김연아 선수가 고난도의 우아한 연기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더군요. 그 책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와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씨름 경쟁은 상호간의 경쟁이며,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는 경쟁이다. 사투(死鬪) 속에서 각자의 자원과 역량이 소진(낭비)되는 구조이다. 그러나 콘테스트 경쟁(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을 하는 것과 비슷한 형식의 경기)는 참여하는 주체들의 역량을 전제로 하는 수준 경쟁이다. 전문가 혹은 대중들의 평가를 통해 선택받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지만, 경쟁을 통해 서로의 역량과 수준이 향상되는 긍정적 구조이다.

우리 농업의 진정한 경쟁은 “너 죽고 나 사는” 씨름 경쟁이 아니라, 특화·차별성을 극대화하여 가치를 창출해 내는 콘테스트 경쟁이 되어야 한다. 지역농업 주체들이 씨름 경쟁의 관점에서 콘테스트 경쟁의 관점으로 경쟁의 개념을 전환해야만 지역주체간의 협력, 타 지역과의 협력을 시작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농업이 살려면, 진정으로 350만 농민이 주인이 되는 경쟁과 협동의 가치를 살려내려면, “애벌

레들을 하나도 죽이지 않는 혁명”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합니다. 애벌레의 모습을 버리고, 번데기로 서의 고독과 힘겨운 시간들을 이겨내어, 마침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기를 수 있는 어른 나비로 거듭나는 근본적인 변화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한농연은 지금까지 농협 개혁운동을 선도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나라 농축협 나아가 각자가 속한 지역농업과 국가 전체의 농업을 근본적으로 혁신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돼 왔는지는 깊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호를 통해 말씀드린 3개의 이야기들이, 진정한 농협 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업에 대한 절망에 완전히 빠진 회원분들이 아니라면, 보다 큰 힘을 내셔서 깊은 물속 밑바닥을 차오르는 희망과 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한 번 크게 도약하는 7월이 되었으면 합니다.